

남구도시기억 도큐멘타

1

시간의 켜를 기록하다

재개발, 재건축으로 사라져가는
대구 남구의 모습과 도시 형성
과정, 생활 이야기 등을 전문적인
조사와 시민 탐사대 활동을
통해 수집하고 기록·보존하여
‘남구’라는 공간과 ‘공간 속
주민 삶’에 대한 문화적 의미와
가치를 되새기고자 합니다.

철거되기 직전의 마을의 과거와 현재를 기록하여 미래의 시민들에게
 '문화적 기억'으로 남는 아카이브 구축

- 입체적 기록 {
- 스토리웨어: 구술, 이야기 기억(생활사)
 - 휴먼웨어: 토박이, 마을인물, 마을활동, 사람관계(사람)
 - 하드웨어: 도시, 건축, 지리(인문지리)

- 3단계로
 구분하여 진행
- 기초 조사
 - 현장 조사
 - 최종 기록

- 3가지
 키워드로 조사
- 인문 지리
 - 도시 생활사
 - 사진, 영상

- 3가지
 방식의 최종 기록물
- 결과 책자
 - 디지털 북
 - 영상 다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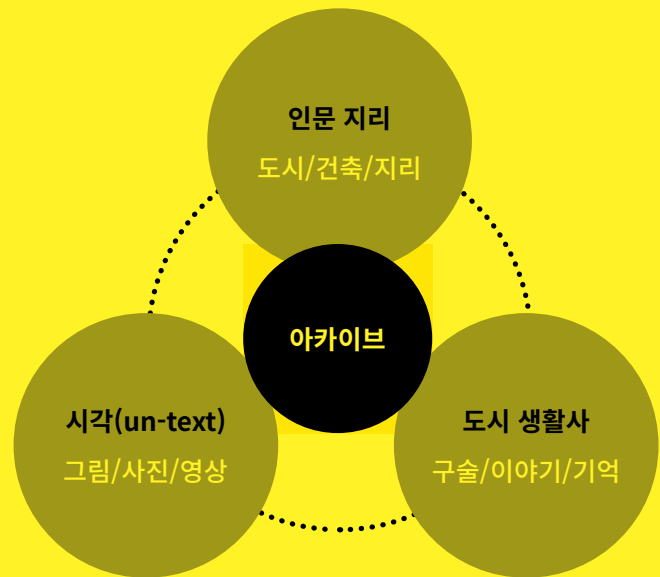
2

남구 / 도시 / 기억 / 도큐멘타

지도맵핑, 사진 영상, 스케치 기법 등을 활용하여 텍스트 위주의
 기록을 탈피하여 직관적으로 기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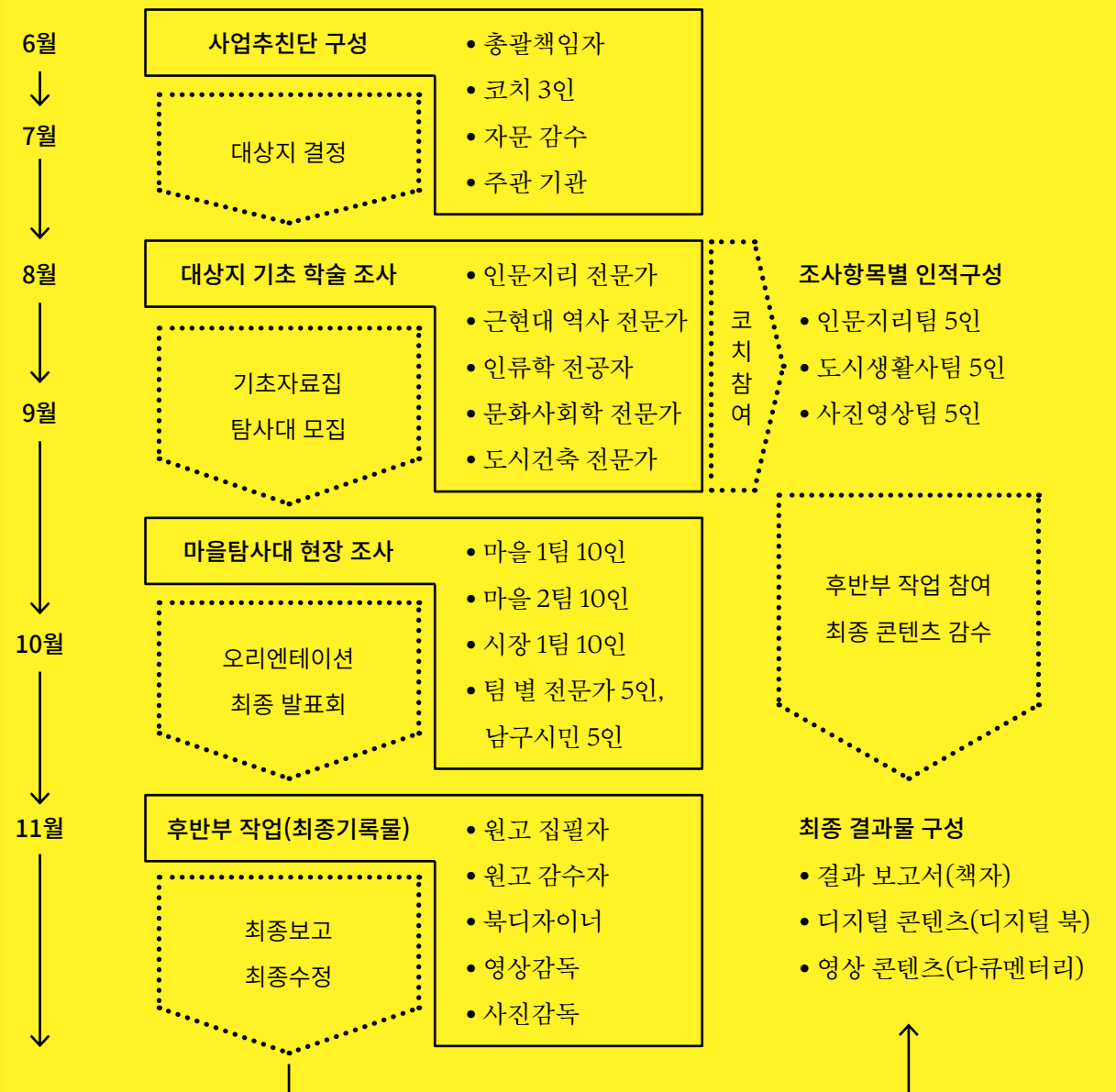
스토리, 인물, 건축물 등 마을의 다양한 요소를 '시간의 켜' 기법을
 적용하여 입체적이고 중첩적인 기록

장소를 중심으로 마을의 변천사를 기록하여 끊임없이 기억하고
 재현되는 공간으로서의 도시를 기록



3

기록 과정



“과거는 끊임없이 소환되는 미래다”

4

기록 방법

